

고등학생의 자기애, 정서적 자기개방이 우울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Narcissism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on the Depression and Happiness Levels of High School Students

박영아(Young-Ah Park)¹⁾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s of narcissism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on depression and happiness level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participants comprised of 334 high school 1st-grad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Girls showed higher levels of both narcissism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than boys, but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evident in the levels of depression and happiness. (2) The more the students felt depressed, the less they experienced happiness. Additionally, the more the students disclosed emotionally about themselves, the less they experienced depression. (3) High levels of narcissism and low levels of emotional self-disclosure increased depression, but the interactional effect between narcissism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on depress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ither gender. Moreover, low levels of narcissism and high levels of emotional self-disclosure tended to see increased levels of happiness for both genders, however the interactional effect between narcissism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on happin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boys. That is, for boys, the negative effects of narcissism on happiness can be reduced if the level of emotional self-disclosure is high.

Keywords : 자기애(narcissism), 정서적 자기개방(emotional self-disclosure), 우울(depression), 행복감(happiness).

¹⁾ 대진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ng-Ah Park, Department of Child Studies, Daejin University, Gyeonggi-do 487-711, Korea
E-mail : parkya@daejin.ac.kr

I.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 내·외적 변화를 경험하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는 대학진학이나 직업선택과 관련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데, 이는 우울로 연결되어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우울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Wade, Cairney, & Pevalin, 2002).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에 다닐 때보다 입시의 부담이 커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Kim & Kang, 2013). 청소년기의 우울은 신체 증상, 무력증, 권태감, 가출 및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Essau, Conradt, & Petermann, 2000), 더 나아가 자살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Kim & Jeon, 2012).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OECD 회원국 중 행복 지수가 최하위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09년에 조사를 실시한 이후 6년 연속 같은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4).

이와 같은 일련의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이 행복감은 적게 느끼면서 우울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 심리적 안녕이 위협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Essau et al., 2000), 이를 예방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고등학생이 우울과 행복감을 경험하는 정도에 성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우울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Bae & Kim,

2009),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Ahn & You, 2013; Kim & Jeon, 2012; Yang & Park, 2011; Yi & Lee, 2009), 남녀 학생 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Kim & Kang, 2013) 등 연구결과가 다양하다. 행복감의 경우에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Ahn & You, 2013; Kim & Baek, 2008),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Yang & Park, 2011), 남녀 학생 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Heo, 2009) 등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생의 우울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자기애(narcissism)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와 관련된 특성으로(Yi & Lee, 200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Yang & Park, 2011)는 점에서, 그리고 자기개방(self-disclosure)은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의 예방에 기여한다(Soenens, Vansteenkiste, Luyckx, & Goossens, 2006; Willoughby & Hamza, 2011)는 점에서 이 두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기애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며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결여된 심리적 특성으로서(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자기애가 적응적으로 기능할 때는 높은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되어 우울, 슬픔, 불안의 수준을 낮추고 주관적 안녕감과 삶에 대한 만족,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Hill & Lapsley, 2011; Rose, 2002; Sedikides, Rudich, Gregg, Kumashiro, & Rusbult, 2004). 그러나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경우 부적응적으로 기능하여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대성 및 특권 인식, 타인에 대한 과민한 반응, 자기중심성, 높은 불안과 신경증이 나타나

고(Washburn, McMahon, King, Reinecke, & Silver, 2004), 우울 성향이 높아진다(Myers & Diener, 1995; Yang & Park, 2011; Yi & Lee, 2009). 이와 같이 역기능적 특성을 가진 자기애는 자신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타인에 대한 적대감 표출과 공격적 행동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며(Lee & Yoo, 2010; Papps & O'Carroll, 1998; Seo & Kwon, 2002), 좌절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거부를 당하는 경우 과도한 분노와 폭력성을 표출하게 만들기도 한다(Bushman & Baumeister, 1998; Twenge & Campbell, 2003). 부적응적 자기애가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성격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Crawford, Cohen, & Brook, 2001), 청소년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애를 경험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남녀 학생 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Lee & Yoo, 2010; Yang & Park, 2011)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Yi & Lee, 2009)가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자기개방은 자신의 생각, 신념, 감정, 경험 등 자신에 대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Laurenceau, Barrett, & Pietromonaco, 1998). 자기개방은 건강한 성격을 발달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며(Jourard, 1971),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이다(Collins & Miller, 1994). 즉, 적절한 수준의 자기개방은 스트레스와 긴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타인과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적응적 성격특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자기개방의 폭이 넓은 경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친밀감을 높이고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Fitzpatrick, 1987), 우울

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데 반해(Ahn & You, 2013), 자기개방의 폭이 좁은 경우 고립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Pathak, 2012).

자기개방의 유형 중에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유형보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유형인 정서적 자기개방이 정신건강에 보다 효과적이다(Kim & Oh, 1997). 즉, 청소년들은 불쾌한 감정을 타인에게 표출하는 정서적 자기개방을 많이 할수록 우울을 덜 느끼는데 반해(Kim & Kang, 2013), 정서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억제하면 심리적 부적응을 겪거나 이상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다(Han, 2004).

자기개방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개방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Branje & Meeus, 2004; Soenens et al., 2006).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 자기애와 자기개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동안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애와 자기개방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이 두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를 정신건강의 위험요인으로, 그리고 선행 연구(Kim & Oh, 1997)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자기개방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밝힌 정서적 자기개방을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가정하고 이 두 변인이 고등학생의 우울과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편, 자기애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평가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Yi & Lee, 2009), 긍정적인 자기 평가에 도전하는 외부의 정보나 상황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도록 한다(Baumeister, Smart, & Boden, 1996). 이러한 자

기애의 속성은 자신의 마음 속 감정을 기꺼이 타인에게 노출하는 정서적 자기개방의 속성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애가 우울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적 자기개방에 의해 조절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업적 성취를 비롯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스트레스원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의 삶 속에서 우울을 예방하고 행복감을 증진시켜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호르몬의 변화와 더불어 정서의 강도와 변화가 심한 시기로 남녀 청소년은 사춘기를 경험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상과 타인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Jang, 1999).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인들에 대해서도 고등학생의 성차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 시기의 심리적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별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우울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성별로 비교분석하여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의 자기애, 정서적 자기개방, 우울, 행복감의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자기애, 정서적 자기개방, 우울, 행복감 간의 관계는 성별로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고등학생의 우울과 행복감에 대한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G시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 334명이었다. 이 중 남학생은 182(54.5%)명이었고, 여학생은 152(45.5%)명이었다.

2. 연구도구

1) 자기애

Hwang(1995)이 DSM-IV의 진단기준을 기초로 개발한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이 척도는 자기중심성(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자기칭찬과 주목의 욕구(예: ‘항상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과장된 자기지각(예: ‘나는 남들에게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을 측정하기 위한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였다.

2) 정서적 자기개방

Kahn과 Hessling(2001)의 DDI(Distress Disclose Index)를 Kim(201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이 척도는 심리적 불편감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예: ‘나는 기분이 나쁠 때 이야기할 누군가를 찾는다.’). 본 연구에서 주성분요인분석을 통해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문항들은 단일 요인으

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타인에게 개방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3) 우울

Radloff(1977)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Chon, Choi와 Yang(2001)이 한국판으로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이 척도는 지난 1주일 동안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예: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응답방식은 ‘극히 드물게: 1일 미만(0점)’에서 ‘거의 대부분: 5~7일(3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였다.

4) 행복감

Suh와 Koo(2011)가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삶의 만족(예: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최근 한 달 동안 경험한 긍정적 정서(예: ‘나는 즐거운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가?’)와 부정적 정서(예: ‘나는 짜증나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는 2013년 12월에 2주 간 이루어졌다. 경기도 G시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한 곳에서 1학년 11개 학급의 담임 교사들에게 협조를 구한 후 연구 보조자가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직접 배부하였다. 대상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동의한 학생들에게 한해 질문지 작성을 의뢰하였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총 350부를 배부하였으나 이 중 부실하게 작성된 16부를 제외하고 334부를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녀 학생 간에 자기애, 정서적 자기개방, 우울,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우울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자기애와 자기개방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두 변인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한 후 투입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였다. 상호작용효과 크기가 유의한지는 Cohen(1988)의 $f^2(\frac{R_2^2 - R_1^2}{1 - R_1^2})$ 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값이 .02보다 클 때 조절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으로부터 $\pm 1SD$ 인 값을 선으로 연결하여 두 단순회귀선의 기울기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다.

Ⅲ. 결과분석

1. 자기애, 정서적 자기개방, 우울, 행복감의 성별 차이

자기애, 정서적 자기개방, 우울, 행복감에 남녀 학생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을 보면 자기애($t = -3.86, p < .001$)와 정서적 자기개방($t = -5.50, p < .001$)에서는 성차가 나타났으나, 우울과 행복감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애(남: $M = 2.38, SD = .47$ vs. 여: $M = 2.56, SD = .36$)와 정서적 자기개방(남: $M = 3.09, SD = .65$ vs. 여: $M = 3.50, SD = .70$)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애가 더 강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더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애, 정서적 자기개방, 우울, 행복감 간 상관관계

자기애, 정서적 자기개방, 우울,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남녀 학생별로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를 보면 남녀 학생 모두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자기애와 우울(남: $r = .29, p < .001$ vs. 여: $r = .38, p < .001$), 자기애와 행복감(남: $r = -.15, p < .05$ vs. 여: $r = -.34, p < .001$), 정서적 자기개방과 우울(남: $r = -.15, p < .05$ vs. 여: $r = -.38, p < .001$), 정서적 자기개방과 행복감(남: $r = .31, p < .001$ vs. 여: $r = .30, p < .001$), 우울과 행복감(남: $r = -.72, p < .001$ vs. 여: $r = -.76, p < .001$) 간의 상관은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남녀 학생 모두 자기애가 강할수록 우울이 증가하는데 반해 행복감이 줄어들고,

〈Table 1〉 Gender differences on the variables

Variables	Boys (n = 182)		Girls (n = 152)		t
	Mean	SD	Mean	SD	
Narcissism	2.38	.47	2.56	.36	-3.86***
Emotional self-disclosure	3.09	.65	3.50	.70	-5.50***
Depression	.84	.51	.91	.43	-1.20
Happiness	5.69	3.07	5.16	2.72	1.65

*** $p < .001$.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Variables	Boys (n = 182)				Girls (n = 152)			
	1	2	3	4	1	2	3	4
1. Narcissism	1				1			
2. Emotional self-disclosure	.04	1			-.08	1		
3. Depression	.29***	-.15*	1		.38***	-.38***	1	
4. Happiness	-.15*	.31***	-.72***	1	-.34***	.30***	-.76***	1

* $p < .05$. *** $p < .001$.

정서적 자기개방을 많이 할수록 우울이 감소하는데 반해 행복감이 증가하며, 우울을 적게 느낄수록 행복감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뜻한다.

3.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우울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1)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1단계에서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의 우울에 대한 설명량은 12%였으며($F = 11.51, p < .001$),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애($\beta = .31, p < .001$)가 정서적 자기개방($\beta = -.18, p < .05$)보다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보면 여학생의 경우 1단계에서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의 우울에

<Table 3> Regression on depression for boys

($N = 182$)

Variables	Step 1				Step 2			
	B	S.E.	β	t	B	S.E.	β	t
(constant)	.50	.26		1.96*	.40	.28		1.43
Narcissism	.35	.08	.31	4.28***	.38	.09	.33	4.30***
Emotional self-disclosure	-.15	.06	-.18	-2.55*	-.14	.06	-.17	-2.39*
Narcissism × Emotional self-disclosure					.11	.12	.07	.91
R^2	.12				.12			
F	11.51***				7.94***			

* $p < .05$. *** $p < .001$.

<Table 4> Regression on depression for girls

($N = 152$)

Variables	Step 1				Step 2			
	B	S.E.	β	t	B	S.E.	β	t
(constant)	.72	.28		2.58*	.79	.32		2.51*
Narcissism	.35	.08	.31	4.19***	.35	.09	.30	3.95***
Emotional self-disclosure	-.21	.05	-.34	-4.65***	-.22	.05	-.36	-4.25***
Narcissism × Emotional self-disclosure					.05	.12	.04	.45
R^2	.23				.23			
F	21.48***				14.31***			

* $p < .05$. *** $p < .001$.

대한 설명량은 23%로서($F = 21.48, p < .001$), 남학생의 경우보다 컸다.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서적 자기개방($\beta = -.34, p < .001$)이 자기애($\beta = .31, p < .001$)보다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2)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1단계에서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의 행복감에 대한 설명량은 10%였으며($F = 9.67, p < .001$),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서적 자기개방($\beta = .28, p < .001$)이 자기애($\beta = -.15, p < .05$)보다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으며($\beta = -.17, p < .05$), 행복감에 대한 변인들

의 설명량이 2% 증가하여 총 12%의 설명량을 나타냈다($F = 8.17, p < .001$).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 크기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f^2 을 산출한 결과, $f^2 = .03$ 으로 나타나 f^2 의 유의성 임계치인 .0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적 자기개방이 조절함을 뜻한다.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지점을 연결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은 남학생에게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단순회귀선을 보여준다. 이 두 단순회귀선의 기울기가 유의한지, 그리고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값에서 정서적 자기개방의 조절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뜻하는 0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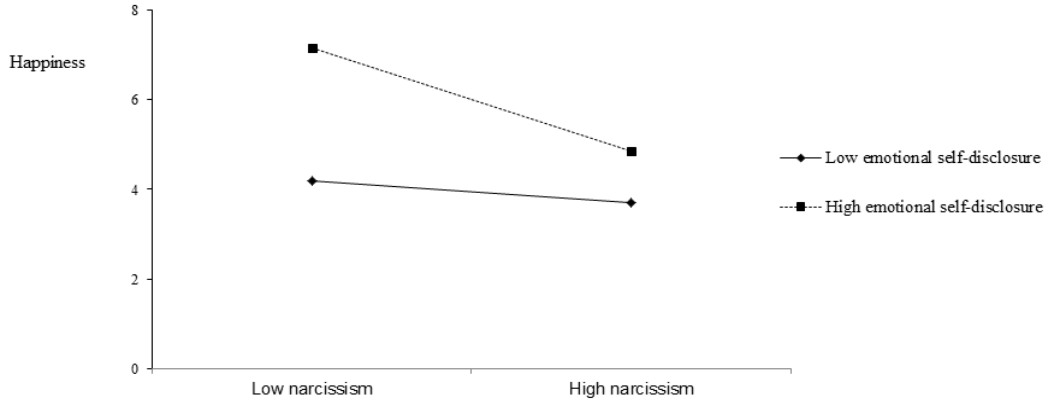
Table 6을 보면 남학생 중 정서적 자기개방의 수준이 높은 집단($M + 1SD$)의 기울기는 유의하지만($t = -3.04, p < .01$), 정서적 자기개방의 수준이 낮은 집단($M - 1SD$)의 기울기는 유의하지 않다. 또한, 정서적 자기개방의 수준이

<Table 5> Regression on happiness for boys

($N = 182$)

Variables	Step 1				Step 2			
	B	S.E.	β	t	B	S.E.	β	t
(constant)	3.78	1.72		2.19*	5.15	1.82		2.83**
Narcissism	-1.12	.53	-.15	-2.10*	-1.67	.59	-.22	-2.85**
Emotional self-disclosure	1.51	.38	.28	3.94***	1.51	.38	.28	3.97***
Narcissism × Emotional self-disclosure					-1.52	.70	-.17	-2.18*
R^2	.10				.12			
F	9.67***				8.17***			

* $p < .05$. ** $p < .01$. *** $p < .001$.



〈Figure 1〉 Interactional effect between narcissism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on happiness for boys

〈Table 6〉 Significance of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self-disclosure for boys

Emotional self-disclosure	<i>B</i>	<i>S.E.</i>	<i>t</i>	LLCI	ULCI
<i>M</i> - 1 <i>SD</i>	-.40	.62	-.64	-1.62	.83
<i>M</i> + 1 <i>SD</i>	-2.37	.78	-3.04**	-3.90	-.83

***p* < .01.

〈Table 7〉 Regression on happiness for girls

(*N* = 152)

Variables	Step 1				Step 2			
	<i>B</i>	<i>S.E.</i>	β	<i>t</i>	<i>B</i>	<i>S.E.</i>	β	<i>t</i>
(constant)	7.36	1.79		4.11***	6.40	2.02		3.18**
Narcissism	-2.32	.54	-.32	-4.30***	-2.18	.57	-.30	-3.92***
Emotional self-disclosure	1.07	.29	.28	3.73***	1.24	.33	.32	3.76***
Narcissism × Emotional self-disclosure					-.80	.76	-.09	-1.05
<i>R</i> ²	.19				.20			
<i>F</i>	17.72***				12.19***			

p* < .01. *p* < .001.

높은 집단(*M* + 1*SD*)에서는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학생이 정서적 자기개방을

많이 하는 경우 자기에가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을 보면 여학생의 경우 1단계에서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의 행복감에 대한 설명량은 19%로서($F = 17.72, p < .001$), 남학생의 경우보다 컸다.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애($\beta = -.32, p < .001$)가 정서적 자기개방($\beta = .28, p < .001$)보다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우울과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 이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남녀 고등학생의 생활지도와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 정서적 자기개방, 우울, 행복감에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에서 성차가 유의하였으며 두 변인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강하다는 연구결과(Yi & Lee, 2009), 그리고 정서적 자기개방의 정도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크다는 연구결과(Branje & Meeus, 2004; Soenens et al., 2006)와 일치한다. 한편, 우울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아 우울에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Kim & Kang, 2013)와 행복감에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Heo, 2009)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과장되게 지각하는 성향이 있

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끄는데 관심이 많으며, 또 한편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더 개방적이라는 점에서 남녀 학생 간 차이가 있는 반면, 삶의 만족이나 적응과 관련된 우울 및 행복감에서는 남녀 학생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애, 정서적 자기개방, 우울, 행복감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남녀 학생 모두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그 밖의 변인들 간에는 상관이 유의하였다. 즉,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반면 행복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애와 우울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결과(Yi & Lee, 2009)와 일치하였으며, 지나친 자기애가 정신건강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Washburn et al., 2004)를 지지하였다. 또한, 정서적 자기개방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 반면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자기개방을 억제할수록 심리적 부적응을 많이 겪는다는 연구결과(Han, 2004)와 정서적 자기개방을 많이 할수록 정신건강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Kim & Oh, 1997)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녀 고등학생이 자기애의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정서적 자기개방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우울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우울의 경우 남녀 학생 모두 높은 수준의 자기애와 낮은 수준의 정서적 자기개방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애가 우울 성향을 높인다는 연구결과(Myers & Diener, 1995; Yang & Park, 2011)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Ahn & You, 2013; Kim & Kang, 2013)와 일치한다.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두 변인이 우울에 기여하는 정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컸으며, 자기애의 영향력은 남녀 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정서적 자기개방의 영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컸고,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의 상호작용효과는 남녀 학생 모두에게서 유의하지 않았다.

행복감의 경우에는 남녀 학생 모두 낮은 수준의 자기애와 높은 수준의 정서적 자기개방이 행복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자기개방이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폭넓은 자기개방이 행복감의 수준을 높인다는 연구결과(Ahn & You, 2013)와 일치한다.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두 변인이 행복감에 기여하는 정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컸으며, 정서적 자기개방의 영향력은 남녀 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자기애의 영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컸고,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의 상호작용효과는 남학생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자기애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정서적 자기개방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조절효과는 정서적 자기개방의 수준이 높을 때만 유의하였다. 이는 남학생이 자신을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개방하면 자기애가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완충된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상반된 방식으로 우울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기애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자신의 정서를 타인에게 개방하는 성향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더불어 자기애와

정서적 자기개방이 우울 및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성별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고등학생의 적응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지도에서 성별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남학생에게는 정서적 자기개방의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여학생에게는 자기애의 수준을 조절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정서적 자기개방과 관련해서는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감정을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타인과의 소통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또, 자기애와 관련해서는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는 것과 같은 적응적인 방식으로 자기애가 발현되게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과장된 지각이나 높은 자의식, 타인의 주목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같은 자기애의 부적응적 특성을 완화시키면서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애와 자기개방이 우울과 행복감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확인하고 이 두 변인이 우울과 행복감에 기여하는 양상에서 성별 차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중재하기 위해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남녀 고등학생의 생활지도와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자기애의 부적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적응적 측면을 함께 다루어서 자기애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과 행복감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교 한 곳에서만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결과를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표집의 크기가 회귀분석
을 하기에 다소 적으며, 우울과 행복감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변인이나 학교성적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References

- Ahn, N. Y., & You, Y. D.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depression/happiness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5), 3201-321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e, J. Y., & Kim, Y. J. (2009).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adolescent's depression and related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7*(3), 295-305.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 Branje, S. J. T., & Meeus, W. (2004). Disclosur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195-209.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Chon, K. K., Choi, S. C., & Yang, B. C. (2001). Integrated adap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59-76.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ollins, N. L., & Miller, L. C. (1994). Self-disclosure and lik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6*, 457-475.
- Crawford, T. N., Cohen, P., & Brook, J. S. (2001). Dramatic-erratic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II. Developmental pathways from early adolescence to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 336-350.
- Essau, C. A., Conradt, J., & Petermann, F. (2000). Frequency, comorbidity, and psychosocial impairment of anxiety disorders in German adolesc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4*, 263-279.
- Fitzpatrick, M. A. (1987). Marriage and verbal intimacy. In V. J. Derlega & J. H. Berg (Eds.), *Self-disclosure: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131-154). New York: Plenum.
- Han, S. C. (2004). *Studies of adolescence: Understanding and guiding adolescents*. Seoul: Hakjisa.
- Heo, S. Y. (2009). An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happ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Hill, P., & Lapsley, D. (2011). Adaptive and maladaptive narcissism in adolescent development. In C. T. Barry, P. K. Kerig, K. K. Stellwagen, & T. D. Barry (Eds.), *Implications of narcissism and machiavellianism for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pp. 89-105). Washington, DC: APA Press.
- Hwang, S. T. (1995). Development of diagnostic criteria for personality disor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H. S. (1999). *Adolescence psychology*. Seoul: Hakjisa.
- Jourard, S. M. (1971). *Self-disclosure: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transparent self*. New York: Wiley-Interscience.
- Kahn, J. H., & Hessling, R. M. (2001). Measuring the tendency to conceal versus disclose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41-65.
- Kim, B. M., & Oh, O. H. (1997). Relation of counselor self-disclosure and client trait-anxiety in counseling proces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16*, 1-14.
- Kim, G. S., & Jeon, Y. S. (2012). The effects of depression, anxiety, and impulsiveness on suicidal thoughts amo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5), 903-913.
- Kim, S., & Baek, H. J. (2008). The construction of Korean youth happiness index.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6), 140-173.
- Kim, S. A. (2013). The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emotional self-disclosure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depression of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A., & Kang, M. J. (2013). The effect of cognitive-emotional regulation, emotional self-disclosure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5), 61-77.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Pietromonaco, P. R. (1998). Intimacy as a process: The importance of self-disclosure and responsiveness in interpersonal exchan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238-1251.
- Lee, S. Y., & Yoo, M. S. (2010). Relationship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with aggression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7), 101-128.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apps, B., & O'Carroll, R.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21-438.
- Park, S. J. (2014, May, 30). Korean children's and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index is the lowest among the OECD nations for 6 years. The Hankyore, Retrieved July. 2, 2014,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9987.html
- Pathak, S. (2012). Parental monitoring and self-disclosure of adolescents.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5*, 1-5.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

- ment, 1, 385-401.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Sedikides, C., Rudich, E. A., Gregg, A. P., Kumashiro, M., & Rusbult, C. (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400-416.
- Seo, S. G., & Kwon, S. M. (2002). Relation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with aggress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809-826.
- Soenens, B., Vansteenkiste, M., Luyckx, K., & Goossens, L. (2006). Parenting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 integrated model with adolescent self-disclosure and perceived parental knowledge as intervening variables. *Developmental Psychology*, 42, 305-318.
- Suh, E. M., & Koo, J. (2011).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1), 95-113.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261-272.
- Wade, T. J., Cairney, J., & Pevalin, D. J. (2002).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National panel results from three countr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1, 190-198.
- Washburn, J. J., McMahon, S. D., King, C. A., Reinecke, M. A., & Silver, C. (2004). Narcissistic features in young adolescents: Relations to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247-260.
- Willoughby, T., & Hamza, C. A. (2011).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bidirectional associations among parenting behaviors, adolescent disclosure an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 463-478.
- Yang, S. M., & Park, K. (2011). The effects of narcissistic tendency on adolescent's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2), 79-100.
- Yi, S. M., & Lee, S. (2009). A relation of covert narcissism to depression and self-efficacy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3(2), 15-28.

Received September 30, 2014

Revision received November 27, 2014

Accepted December 1, 2014